

# 한·중 FTA 발효時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제언

2015. 6. 4

정낙근 수석연구위원



**여의도연구원**

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  
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--

# 목 차

## 요 약

1. 동 향 / 1

2. 남·북·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/ 2

3. 정책적 제언 / 4

---

## 《 요 약 》

- 본 보고서는 한·중 FTA 발효 이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·중 양국의 특혜관세 혜택 부여에 따라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비책 및 활용방안 강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
  
- 정책 제언
  - (5·24조치 해제의 전향적 검토) 5.24조치의 지속이 한·중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
  - (중국산 농산물 점유율의 급속 확대 대비) 북한산 강낭콩, 참깨, 버섯, 견과류 등 양허대상 농수산물 품목의 중국산 점유율 급속 확대에 따른 대비책 시급
  - (나진선봉 역외가공지역 설치 적극 검토) 남북 및 중국 동북3성이 상호 협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선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개발사업을 추진, 남·북·중 3국의 공동이익 창출
  - (북한내 경제개발구에 대한 선택·집중 방식의 투자협력) 저임금 양질의 북한노동력 활용을 둘러싼 한·중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
  - (두만강유역 한·중 다자간 공동무역특구 개발) 두만강유역에 한·중 FTA 산업단지 조성 및 남·북·중 및 남·북·러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개발

# 1. 동향

## ○ 6.1, 한·중 FTA 정식 서명 / 금년 내 국회비준 거쳐 발효 예정

- 한·중 FTA로 12조 달러 규모 거대시장 탄생,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 수출 730억 달러, 對中 수입 418억 달러로 한·미 교역액 1,03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섬
- 정부, 한·중 FTA 발효時 향후 10년간 ▲GDP 0.96% 추가 성장 ▲146억 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▲53,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 추산

## ○ 특히,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·중 양국의 특혜관세 혜택 부여는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입안時 중요한 고려사항

- 현재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을 비롯, 향후 나선과 황금평·위화도 등 북한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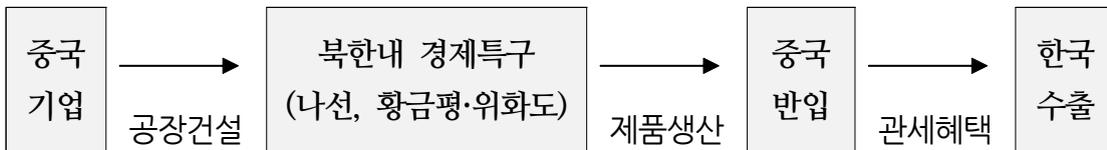
※ 한반도 역외가공지역: 원산지를 남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북한지역은 현재 개성공단이 유일하며, 한·미, 한·EU FTA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신고 품목별로 한국산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정받는 생산품 全無

☞ 따라서, 한·중 FTA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의 활용대책 강구가 필요함

## 2. 남·북·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

### ○ 북중무역

- (단기) 한·중 FTA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
  - 북중무역 중 임가공 교역 비중이 20% 미만으로 추정되어, 한·중 FTA의 수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
- (장기) 향후 북한에서 임가공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상품의 증가 예상
  - 중국내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對北투자 증가 가능성



### ○ 남북교역

- (개성공단) 개성공단을 비롯한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합의, FTA 발효 즉시 별도위원회의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 적용 실시
  - 한·중 FTA를 통해 남한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 기대
  - 다만,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 對중국 수출時 북한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은 제품은 이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 인하폭 미미

- (일반교역) 기존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

- 5.24조치 이후 북한상품 반입 전면 중단상태
-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한국상품의 반출은 5.24 조치 이전부터 미미한 수준
- 그러나 한반도 역외가동지역 추가 선정時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저임금 양질의 북한노동력 활용을 둘러싼 한·중 양국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

○ 동북3성 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가능성

- 역외가공지역의 북·중 접경지역 설치時 무관세로 가공하고 동북3성에서 완제품을 생산, 중국 전역 내수시장에 판매 가능
- 특혜관세 혜택을 기반으로 동북3성 현지 진출기업의 동북3성 신흥 전략산업단지와 연계, 최종재를 현지 생산하고 중국 전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교두보로 활용 가능

### 3. 정책적 제언

#### ○ 5·24조치와 관련한 전향적 해결방안 모색

- 5·24조치의 지속은 기존 개성공단 투자업체의 한·중 FTA 특혜관세 혜택 제약 우려
- 그러나, 5·24조치 해제時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확대 예상

#### ○ 농수산물 중 과거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던 강낭콩, 참깨, 버섯, 견과류 등 양허대상 품목의 중국산 점유율 급속 확대에 따른 대비책 시급

#### ○ 나진선봉 지역 역외가공지역 설치 적극 검토

- 북·중 접경지역인 나선에 역외가공지역 설치時 경쟁관계에 있는 북·중 경협과 남북경협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에도 기여
- 남북 및 중국 동북3성이 상호 협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선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개발사업을 추진, 남·북·중 3국의 공동이익 창출
- 나선지역의 남북한 개방적 경제특구는 북한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의 제3국으로의 직접 수출을 통해 북한내 수출산업 육성
- 이같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출산업 개발과 남한기업의 연계 추진 가능

- 중국기업의 공동 참여는 개성공단 사례와 같이 남북경협 경색국면에서 북한의 일방적 특구 운영중단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
- 한·중 FTA 후속조치 가동에 대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북한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진출 적극 검토
  -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저임금 양질의 북한노동력 활용을 둘러싼 한·중 양국간 치열한 경쟁 불가피
- 한·중 다자간 공동 무역특구 개발 필요
  - 중국이 동북3성 접경지역의 동서 양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통물류 통합인프라 활용
  - 두만강 지역에 한·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고, 남·북·중, 남·북·러 3국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개발
  - 남·북·중 및 남·북·러 다자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으로 확대 가능
  - 한국기업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·중 접경지역 건설, 물류, 관광, 자원개발 및 가공제조업 등 참여 가능